



[기획]채만식의 친일작품 1 – 군신(軍神)

저자 채만식
(Authors)

출처 [실천문학](#) , 2003.2, 413-440 (28 pages)
(Source) [Silcheonmunhak](#) , 2003.2, 413-440 (28 pages)

발행처 [실천문학사](#)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168998>

APA Style 채만식 (2003). [기획]채만식의 친일작품 1 – 군신(軍神).
실천문학, 413-440.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133.25
2016/06/13 16: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군신(軍神)

1. 천하 제일의 날랜 군사

우리 일본군이 남방의 여러 곳에서 혹은 육전으로 혹은 수전으로 또 혹은 비행기를 타고 공중전으로 하고많은 접전을 하여 하고많은 승전을 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하고 의의 깊은 접전은 아마도 마래(馬來)반도 이천팔백 리 지경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겨우 오십오 일 만에 짓쳐 내려가 눈 깜짝할 사이 다시 싱가포르를 빼앗아서 우리의 적국 영국이 동아를 억누르고 호령하던 제일 굳고도 요긴한 굴혈을 버젓이 두려 빼인 저 마래작전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대저 마래반도는 우리나라로부터 서남쪽으로 바닷길 이만 리를 상거하고 있는 땅이요 동아 대륙의 남쪽 끝 타이국=섬라국(泰國=暹羅國)에서 시작하여 흡사히 주먹 쥔 팔뚝 형상을 하고 남동을 향하여 구부정하니 길게 뻗어내려 인도양과 남지나해 두 바다의 경계를 이룬 요지로써 그 절반을 타 북쪽이 태국에 딸리고 남쪽을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영국이 차지한 쪽을 일러 영령 마래 혹은 그저 마래라 하였으니 싱가포르를 그 남쪽 머리로 조홀 수도(水道)라는 넓이 이마정 남짓한 좁

다란 물(海峽)을 건너서 있는 조그마한 섬이요 섬의 남쪽 끝으로 태평양과 인도양과 남지나해의 목을 지키고 있는 항구가 곧 싱가포르 항구였다.

황공하옵게도 위에서 우리나라의 적국 미국과 영국을 치라신 분부가 내려오시던 소화 16년 11월 초파일 첫새벽 마래반도를 서쪽 해변으로 쫓아 싱가포르로 향하고 쳐내려가는 소임을 맡은 우리 마쓰이 병단은 곧장 선봉을 몰아 타이국과의 접경에 있는 영령 마래의 맨 앞 진터 짓도라를 가리키며 풍우같이 짓쳐나갔다.

그로부터 마쓰이 병단은 타이국 땅 사다오에서 국경을 넘어 짓도라를 한칼에 무찌른 후 내쳐 그대로 치고 쫓으면서 이천팔백 리 지경을 숨돌릴 사이도 없이 적군을 몰고 내려가 해가 바뀌는 1월 30일에는 벌써 조홀을 점령하여 천하의 요지요 군기로 이름난 ‘싱가포르’를 그만 꼼짝달싹 못하도록 델미를 잡아놓았으니 그동안이 겨우 오십일 만이었던 것이다. 마래반도는 소위 열대지방으로 사철 여름이요 그 더위는 우리나라의 한여름보다 갑절이나 더 심하다. 그러한 고로 초목이 대단히 무성하여 몇백 년씩 자란 아름드리 나무와 질긴 풀 넝쿨과 사나운 가시가 서로 감기고 엉키어 칙칙한 숲 덩불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이 곧 ‘정글’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글 속은 가지와 잎이 가리어 햇빛이 들지 못하고 대낮에도 오히려 어둑침침하다. 넝쿨과 가시가 엉키어 나는 새도 그 속을 잘 날지 못하고 기는 짐승도 그 속을 잘 기지 못한다. 오직 독한 벌레와 무서운 뱀의 무리들이 그 속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람으로는 좀처럼 그 속에 발길을 들여놓을 곳이 되들 못한다. 이러한 정글이 몇십 리 몇백 리씩 덮여 있다.

정글이 다하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허리까지 폭폭 빠지는 진흙구렁이 나온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무나무가 빗살같이 총총 들어서서 몇십 리 몇백 리씩 뻗어나간 고무숲이 나온다. 마래반도는 다른 열대지방과 한

가지로 이와 같은 흉악한 정글과 고무숲과 진흙구렁으로 온통 덮여다시피 한 땅이다. 물론 가다오다 마을과 논밭도 있고 대채도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곳은 통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백 칸에 아흔아홉 칸은 역시 정글과 고무숲과 진흙구렁이 차지하고 있다.

마래반도의 길은 그러한 정글과 고무숲과 물구렁 가운데로 단 한 줄기의 행길과 철도가 나란히 나 있을 뿐이요 이 한 줄기의 길이 아니고는 정글과 고무숲과 진흙구렁에 막혀 마음대로 군사를 나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고장이었다. 그런데 적군은 그 한 줄기밖에 없는 길을 따라 요처마다 굳은 진터를 만들어놓고 목 지킴을 하고 있었다.

지키는 적군도 그 한 줄기의 길을 지키었거니와 쳐내려가는 우리 군사 역시 그 한 줄기의 길로 쫓아서 쳐내려가는 수밖에 우선 변통이 없었다. 그러나 적군은 수효가 많고 진이 강하여 앞으로만 대고 쳐가지고는 속히 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군사는 손을 나누어 그 한 때가 가만히 옆으로 비어져 나가 적군의 등 뒤나 혹은 옆구리를 별안간 엄습하여 손쉽게 그를 파하고 파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 적군의 등 뒤나 옆구리를 별안간 엄습하기 위하여 가만히 옆으로 비어져 나간다는 것이 결단코 조련한 노릇이 아니었다. 옆으로 비어져 나가자면 천하 없어도 정글이나 고무숲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글을 읽는 이 가운데서도 활동사진이나 여느 사진에서 우리 군사의 한 때가 손에 손에 도끼며 톱 같은 것을 지니고 짹짹한 나무덤불을 찍어 헤치며 나아가고 그 뒤를 무거운 대포 수레나 화물자동차를 밀고 이끌면서 애써애써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눈물나는 정상을 본 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또는 대포 수레를 끌어가지고 누구는 바퀴를 누구누구는 대포 몸통이를 머리에 이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하고 허리까지 폭폭 빠지는 진흙구렁을 건너가고 있는 정상을 또한 많이 보았을 것이

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여름 한더위보다도 갑절이나 더운 더위를 무릅쓰고 폭포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며 일변 독한 뱀과 사나운 짐승에게 시달리면서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노박이로 며칠씩 계속하여서 하는 노릇이니 오죽 고생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총을 쏘며 검을 휘둘러 적군의 군사를 무찌르는 본관의 접전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정글과 고무숲을 헤치며 진흙구렁을 건너서 나가기란 본관의 접전보다 더 힘이 들고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못하지는 아니한 것이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 군사의 마래 접전은 적국 영국 군사와 하는 접전인 동시에 한편 정글과 고무숲과 진흙구렁 같은 것과 싸우는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

힘들고 어렵기는 그러나 다만 정글과 고무숲이나 진흙구렁만이 아니었다. 우리 군사가 쳐내려가는 그 한 줄기의 길에는 크고 작은 다리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 적군은 한 곳에서 패하고 달아날 적이면 으레 다리에 폭발탄을 묻었다가 부수고 하였다. 우리 군사는 우선 적군으로 하여금 패하고 달아나면서 다리를 부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 적진을 뚫고 나가서 다리를 빼앗아놓아야만 하였었다. 앞으로 차차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룰스타라는 한 다리에서 적군이 전기로 폭발을 시킬 참으로 다리에 무슨 폭발탄에다 전깃줄을 늘어놓고는 건너편에서 마침버르고 있는 것을 우리 아사이 중위가 달려들어 전깃줄을 끊으려다가 아차 그만 폭발탄이 먼저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장렬한 전사를 한 것도 매양 다리를 빼앗아 쳐나감을 빠르게 하려는 우리 군사의 용맹스런 싸움 법칙이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군사는 용맹을 부리며 무섭게 납땀있건만 오히려 손이 미치지지를 못하여 할 수 없이 부서지는 다리가 많았다. 우리 군사는 부서진 다리를 일일이 채빠르게 고쳐가면서 쳐내려가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 이리하여 마래 접전은 쫓기는 영국 군사와 쫓는 우리 군사가

다리를 부수기와 부서진 다리를 고쳐놓는 경주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우리 군사는 무서운 더위와 싸워야 하였으며 매일 한 차례씩 쏟아지는 폭포 같은 소낙비와 싸워야 하였으며 일본 사람의 몸에는 한번 물리기만 하면 반드시 지독한 학질을 앓는 모기 떼와 싸워야 하였으며 일본 사람의 몸에는 잘 맞지 아니하는 수토(水土)와 싸워야 하였다.

이렇듯이 우리 군사는 수토 불복과 독한 모기 떼와 폭포 같은 소낙비와 무서운 더위의 온갖 것과 싸우면서 이르는 곳마다 부서진 다리를 일일이 재빠르게 고쳐가면서 때때로 미리서 짓쳐 들어가 다리를 성히 빼앗으면서 흉악한 정글과 고무숲을 헤치고 진흙구렁을 건너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적군과 연해 접전을 하면서 하루에 오십여 리 대중으로 달리어 오십오일 만에 이천팔백 리 지경을 짓쳐 내려갔던 것이다. 그 오십 일 동안에 적군과 접전을 아니한 날은 단 닷새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천팔백 리 지경을 짓쳐 내려가면서 크고 작은 접전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 하면 백 번째 여덟 번 모자라는 아흔두 번이요 다리 부서진 것은 자그마치 이백오십 개를 고쳤으니 하루에 평균 두 번씩 접전을 하고 다섯 개씩 다리를 고치면서 그 온갖 힘들고 어려운 오십여 리 길을 매일매일 달린 셈이었다.

날랜 군사 날랜 군사 하여도 이처럼 날랜 군사가 세상에 또다시 있을 리가 없었다. 진실로 천황폐하 어능위 아래 우리 일본 군사의 지극한 충성과 비길 데 없는 용맹과 무쇠같이 튼튼한 신체와 그리고 이를 거느리는 장수의 조화무궁한 병법과 빼어난 용병이나 하였기에망정이지 남으로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의 세계전쟁에서 독일 군사가 파란국이니 아라사를 쳐들어가던 것을 소위 번개같이 치는 접전이라고 부르며 굉장하였던 것같이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였다. 미상불 독일 군사도 하루에 오십여 리씩 곧바로 나아간 적이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정글과 고무숲이나 진흙

구렁이 있는 바 아니요 가는 곳마다 부서진 다리와 폭포 같은 소낙비와 무서운 더위가 있는 바 아니요 좋은 일기에 허허벌판의 좋은 길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다 같은 하루에 오십 리라도 마래 땅에서 우리 군사가 무서운 더위를 비롯하여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하루에 다섯 개 켱의 다리를 고치고 두 번씩 접전을 하며 정글과 고무숲을 뚫고 진흙구렁을 건너서 나아가는 오십 리에다 대이면 독일 군사의 오십 리는 그 반에 반도 못 된다 하여도 과한 말이 아닐 것이다.

2. 짓도라 접전

짓도라는 영국이 마래 땅을 북쪽으로 지키는 맨 앞 진터로서 매우 요지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작부터 그 근처에 외국 사람들을 일쯤도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사는 그곳을 쳐들어가기의 하면서도 적군의 진터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생기고 얼마나 튼튼한 진터인지 또는 얼마나 되는 군사로써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었다.

마쓰이 병단의 선봉으로 사헤키 부대가 타이국 땅 사다오로 쫓아 영령 마래의 국경을 넘기는 아흐렛날 한밤중이었고 다음다음 날인 열하룻날 석양에는 벌써 짓도라의 조금 못미처 있는 찬눈 마을을 무찌른 후 중군(主力)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쳐 그대로 짓도라를 향하여 짓쳐 들어갔다. 이때 사헤키 부대는 보병 공병 야포대와 전차대를 합하여 도합 〇〇명의 매우 적은 병력이었었다.

(전차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접전하는 데 쓰는 수레니 모양은 똑딱선 비슷하고 온통 무쇠 철갑을 하고 꼭대기의 한가운데로 뚜껑이 있어 그리로만 드나들게 마련이며 크기에 따라 조그만 대포나 속사포를 앞뒤

로 총부리만 쑥 내어놓고는 병정이 그 안에 숨어서 탕탕 쏘아 제치고 제물바퀴(無限軌道)로 평지거나 언덕이거나 개울이거나 수풀이거나 비호같이 날쌔게 달려 다니면서 성난 황소같이 함부로 적군의 진터를 으그러뜨리고 적병을 상해 넘어트리고 그러하되 웬만한 대포 탄환은 맞아야 꿈쩍도 아니하고 불도 안 무서워하고 물도 안 무서워하고 양회 공구리한 집이나 성 같은 것도 대가리로 떠받들면 직신 무너진다. 오두막집 집채만이나 한 것으로부터 가마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이 있다. 오늘날 육지의 접전에서 전차처럼 무서운 병기는 아직 없다.)

오후 여섯시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사해키 부대는 ○채의 전차를 앞세우고 부대장이 모사(參謀)와 함께 그 뒤를 따르고 화물자동차에 논하여 탄 보병과 공병과 포병들이 딸고 이렇게 늘어서 전속력을 다하여 짓도라를 향하고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마침 하늘이 내려다 보고 귀신이 도왔음인지 참 좋게도 별안간 소낙비가 쏟아졌다. 열대지방의 소낙비는 스콜이라고 하여 우리 일본의 소낙비는 거기다 대면 가랑비 푼수밖에 아니 되고 여승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무엇이 퍼붓는 소낙비다. 그런데 이때에 사해키 부대가 만난 소낙비는 그런 중에도 더 요란스런 소낙비였다. 여느 때라면 소낙비가 행군에 방해되고 귀찮았을 것이로되 이때만은 도리어 도움이 되고 고마웠다. 첫째 소낙비와 소낙비 소리에 잠기어 사방이 잘 보이지 않고 전차며 자동차와 화물차의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멀리 들리지 아니하여 근처에 적군이 있으면서도 우리 군사가 저희 진중을 뚫고 나가는 줄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해키’ 부대장을 비롯하여 군사들은 모두 이거 마침 잘되었다고 좋아하면서 소낙비를 헤치고 속력을 있는 대로 내어 막 들어달렸다. 타마구를 칸 질편한 길은 우리 군사를 위하여 만들어놓은 것처럼 달리기가 좋았다. 앞선 전차가 어떻게 잘 달리든지 ‘사해키’ 부대장의 자동차만 그 뒤를 따라가지 보병이며 공병과 포병을 태운 화물자동차들은 자꾸자

꾸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달린 지 한 삼십 분에 오십 리 가량 왔을 무렵이었다. 어느덧 적군의 진터까지 들어왔던 모양으로 길 양편으로 적군의 대포가 총부리를 길로 겨누고 죽 놓여 있었다. 이렇게 겨냥을 대이고 있는 대포를 탕탕 쏘았다면 우리 군사는 전차고 보병이고 꼼짝 못하고 함몰을 당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대포만 그와 같이 잔뜩 겨누고 있지 적군이라고는 어리친 개새끼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우리 군사는 펍 이상쩍게 여기면서도 하여튼지 해롭지 않은 노릇이라고 기뻐하면서 쉹쉹 그대로 달려나갔다.

이윽고 고무숲이 길 좌우로 직직히 들어선 곳을 다다르니 이번에는 화물자동차가 백여 채나 역시 길가로 놓여 있었다. 대포도 물론 있고 전차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적의 그림자는 종래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고무숲으로부터 갑자기 콩 튀듯 총소리가 일어났다. 가만히 동정을 살핀즉 깊숙이 고무숲 속에 있는 움막에서 우리 군사를 향하여 보병총과 속사포 따위를 쏘고 있는 모양이었다. 옳거니 하고 우리 군사는 비로소 그 속내를 알았다. 적군은 소낙비 하나를 못 이기어 대포고 전차고 막걸리고 모두 다 길 옆에다 내동댕이를 치고는 고무숲의 움막으로 도망하여 비를 피하느라고 일본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커다란 일본군의 사납게 생긴 전차가 여남은 채나 주옥 땅에서 불끈 솟은 것처럼 느닷없이 달려드는 바람에 그만 기겁을 하여 겨우 움막 속으로 가지고 갔던 보병총과 속사포 따위를 되내로 쏘아대던 것이었다. 기막힌 병정이었다. 비를 무서워하는 천하에 알랑스런 병정을 가지고 군사가 온통 불덩어리 같은 일본 군과 싸우자고 대어든 영국 미국이야 가소로운 일이었다.

소낙비는 아직도 기승으로 쏟아졌다. 적군은 송사리 떼처럼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전차 때는 대포와 속사포를 쏘면서 달아나는 적군의 뒤를 쫓아 달리던 길을 계속하여 달렸다. 이때 우리 전차는 야마네 대

위가 거느렸었는데 참으로 속이 후련하도록 잘 해내었다. 길 양편으로 총부리를 비죽비죽 내놓고 있는 적군의 대포라는 대포는 모조리 쳐부수면서 한편 앞으로 곧바로 나갔다.

적군의 전차가 한 이십 채나 길 위에 되는데로 홀어져 쉬고 있는 곳에 다다랐다. 우리 전차 때는 토끼를 본 범처럼 벼락치듯 달려나갔다. 적군의 전차 때는 수로는 갑절이나 되면서도 싸울 생심을 못하고 앞을 다투며 꿈무늬가 빠지게 도망질을 쳤다. 우리 전차는 전속력을 놓아 막들이 쫓았다. 얼마 동안 쫓다가 보니 쫓는 우리 전차의 한 때가 쫓기는 적군의 전차 때보다 도리어 앞장을 서서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뒤에서 쫓고 있어 적군의 전차 때는 앞선 한 때의 우리 전차 때와 뒤쫓는 우리 전차와 틈 사이에 끼여 납작 강아지가 된 형국이었다. 그렇게 되고 본즉 앞선 우리 전차에게서는 등 뒤로 적군의 전차 때를 쏘자니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우리 전차를 파손할 염려가 있고 뒤를 쫓는 우리 전차에서는 앞으로 적군의 전차 때를 쏘자니 앞서가는 우리 전차를 상할 염려가 있고 하여서 함부로 불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전차 때는 어떤 전차에서는 속에 타고 있던 병정이 뚜껑을 열고 윗도리를 내어놓고서 적군의 전차에다 수류탄을 던져 부서트리기로 하였다. 사방에서 적군의 탄환이 날아오건만 꿈쩍도 아니하고 연달아 그 짓을 하고 있었다. 또 어떤 전차는 머리로 적군의 전차의 꿈무늬를 들이받고 어떤 전차는 옆구리를 들이받고 넘어뜨렸다. 적군의 전차는 채집이 작고 또한 약하여 커다란 우리 전차가 슬쩍 다치기가 무섭게 나동그라지고 하였다. 아주 재미가 욱실욕실하였다. 이렇게 하여 스무 채나 되는 적군의 전차를 순식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때려부숴 버렸다. 그러면서도 우리 전차 때는 그 속력 그대로 갈 길을 가고 있었으니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기였었다.

이윽고 날이 어실어실 어두워오고 소낙비는 그만하여졌다. 다다른 곳

이 어느 지경인지는 모르겠으되 사면이 모두 적병이었다. 앞뒤와 좌우로부터 총알과 대포탄환이 함부로 날아왔다. 그 적병이 얼마나 되는 병력인지는 분간할 수가 없으나 아무튼 우리 편은 전차 ○채밖에 아니 되는 호전한 병력으로서 깊이 적진 중에 들어와 적병에게 꼭 둘러싸인 모양쯤 되었었다. (중략—편자)

3. 귀신을 올리도다

짓도라를 깨트린 우리 군사는 이번에는 와다나베 부대가 선봉이 되어 아룰스타라는 곳을 향하고 짓쳐 내려갔다. 아사이대는 이 와다나베 부대에 딸린 빨른대로 아룰스타로 건너는 큰 다리를 성한 채 빼앗기 위하여 13일 첫새벽 와다나베 부대보다 한 걸음 앞서 자동자행거를 몰아 쏘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아사이대의 군사는 아사이 대장을 비롯하여 도합 ○명이었다. 죽기로 나선 용맹한 중에도 용맹한 병정들이었다.

우렁찬 자동자행거의 소리와 함께 아사이대는 앞으로 달려나갔다. 군데군데 적군의 조그만씩 한 진터가 있어 총질을 하였으나 본체만체하고 썩썩 달려갔다.

오전 열시 십분 아사이대 일행은 마침내 목적하였던 바 아룰스타의 다룻목 가차이 당도하였다. 다리에는 물론 폭발탄을 묻고 전깃줄을 늘어 약차하면 그대로 터트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리 건너편에서 한 삼백 명 가량의 적군이 다리를 지키고 있다가 우리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일제히 총질을 하였다. ○명밖에 아니 되는 우리 군사를 향하여 총알을 빗발치듯 퍼부었다.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곧 죽음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새것 같이 가벼운 한 목숨을 천황폐하께 바치고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나온 몸이었다. 적군

의 충알을 두려워하여 마땅히 할 일을 못할 우리 일본 군인이 아니었다.

아사이 대장은 ○명 수하를 앞에 세우고 늑름한 음성으로

“지금이야 천황께 바친 목숨을 나라를 위하여 보람 있게 쓸 때가 왔다. 잘들 알겠지?” 하고 물었다. ○명 군사의 입으로부터 “넛” 하는 대답이 씩씩하게 울려나왔다.

“음 그러면 가네코 오장과 나카야마 오장은 자동자행거를 몰아 다리를 건너서 적진 중으로 쫓아 들어가라.”

이렇게 아사이 대장이 명령을 하자 가네코 오장과 나카야마 오장은 선뜻 “넛” 하면서 앞으로 나서더니 “그러면 가겠습니다”는 한마디씩을 남기고는 어느덧 자동자행거에 올라 바퀴를 나란히 하고 다리를 향하여 비호같이 달려간다.

아사이 대장은 남은 병정들로 하여금 속사포를 막 들이쏘아 가네코 나카야마 두 오장을 뒷받침(掩護)하게 한다.

가네코 나카야마 두 오장의 자동자행거는 눈 깜짝 할 사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 곧장 그대로 적진 중으로 달려 들어갔다. 적군이 와— 하고 덤벼든다. 두 오장은 각각 한 손에 검을 쥐고 한 손에 육혈포를 들고 이놈 빼고 저놈 쏘고 하면서 성난 범같이 날뛰다. 적군의 시체가 즐비하게 쓰러졌다.

적군은 마치 장판교에서 장비를 만난 조조 군사처럼 겁을 집어먹고 불질이 잠깐 너그러워졌다. 그 틈을 타 아사이 대장은 수하 두 명을 데리고 자동자행거를 몰아 다리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다리 중간에 다다랐다. 아사이 대장은 자동자행거로부터 뛰어내려 다리에 묻은 폭발탄에다 비끄러매인 전깃줄을 덥석 움켜잡는다. 이 줄 하나만 끊어버리면 다리는 성한 채 빠앗는 것이다. 그러나 아사이 대장이 전깃줄을 막 움켜잡는 그 순간 팡— 하는 소리와 더불어 폭발탄은 터졌다.

아사이 대장과 두 명의 군사는 신체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까맣게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뿔뿔이 여기저기에 떨어진다. 참으로 귀신도 아니 울지 못할 용맹한 죽음이었다.

한편 다리 건너 적진 중으로부터 뛰어들어 좌충우돌하던 가네코 나카야마 두 오장은 적병 수십 명을 베고 쏘아 넘어트린 끝에 마침내 칼이 꺾어지고 탄환이 다하여 나카야마 오장은 죽고 가네코 오장은 상하여 쓰러지고 하였다.

또 다리 이쪽 편에서 응결을 하고 있던 나머지의 우리 군사 다섯 명은 길 옆으로부터 별안간 전차를 다섯 채나 앞세우고 백여 명이 달려드는 적군의 한 떼를 만나 겨우 다섯 명으로 능히 삼십 분 동안이나 단병 접전을 하여 적군의 전차 한 채를 부서뜨리기까지 하였으나 역시 기운이 소진하여 다섯 명이 혹은 죽고 혹은 상하였다.

이리하여 아사이대는 뜻한 바같이 다리는 비록 성히 빼앗지 못하고 부서졌으나 그 용맹스런 싸움은 결단코 생색이 없고 만 것이 아니었다. 적군이 아사이대 하나를 당하여내느라고 온갖 힘과 정신이 모두 팔려 있는 동안 뒤미처 당도한 우리 군사의 한 떼가 날새게도 그 위에 있는 철교를 감쪽같이 차지하였던 것이다. 아사이대가 싸우던 다리는 여느 다리요 바로 그 위로 기차가 다니는 철교가 또 있었다. 이 철교에도 짐동만한 폭발탄이 묻혀 있었는데 적군은 경황중에 그를 터트릴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 군사는 이 성하게 빼앗은 철교에다 판자를 깔고서 아무 군색함과 지체됨이 없이 병기와 군사를 건네어 예정한 대로 곧 아를스타를 무찌를 수가 있었다. 연고로 아사이대는 빼앗으려던 다리는 것처럼 부서지고 말았으나 그 공은 다리를 빼앗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와 같이 하여 우리 군사가 빼앗은 아를스타에는 썩 좋은 비행장이 여러 곳 있었다. 또 비행기에 쓰는 가솔린도 천 통씩 이천 통씩 사방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적군은 도망가기가 바빠 가솔린에 불을 지

를 정신도 없었다.

우리 비행기는 그새까지는 훨씬 뒤결에 있는 ○○의 비행장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행장의 설비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상거가 멀고 하여서 여러 가지로 웅색스러운 일이 많았었다. 그러나 아롤스타를 빼앗은 뒤로부터는 우리 비행군은 이곳에다 터(基地)를 잡고서 자꾸 자꾸 비행기를 가져다가 적군이 만들어준 훌륭한 비행장과 좋은 가솔린을 써가면서 마음껏 적군을 칠 수가 있었다. 우리 군사는 이로부터 무시로 비행군의 도움을 받아 싸우기가 한결 수월하였고 19일에는 피낭(彼南島)이라는 섬을 23에는 다이빈이라는 요지를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6일에는 여러 곳으로 쫓아 베라 강을 건너 이보를 무찔렀으며 설날 그믐날부터는 요지 감발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보에서 감발까지는 상거가 백 리 가량 되는데 그 중간쯤에 큰 산이 하나가 있었다. ‘감발’로 치켜 들어가던 우리 군사는 이 산 밑에서 한 때의 적군을 만났다. 그들은 얼굴 새까만 인도병으로서 산을 의지하고 용맹하게 우리 군사를 막았다. 본래 인도 병정들은 영국인에게 속아서 혹은 억지로 전쟁에 끌려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국을 위하여 전쟁을 할 충성도 없으며 영국의 편역을 들어 일본 군사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할 내력도 없었다. 도리어 영국이 원수스런 그들이었다. 영국은 인도 백성들의 피를 빨고 갖은 학정을 다하고 있었다. 인도 백성들은 영국에 대한 원한이 뱃속까지 사무쳤다. 그러한 인도 병정들이니 총부리를 돌려대어 영국 병정을 쏘고 싶을지언정 신이 나서 일본 군사와 싸울 이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래 접전에서 어디를 가거나 우리 일본 군사가 얼씬만 하여도 도망을 가느니 영국 병정이요 항복을 하느니 인도 병정이었었다. 그러던 인도 병정이 전고에 없이 이곳에서는 그처럼 뒤로 물러가려고도 아니하고 죽겠다고 항복도 아니하고 총질을 하며 항거를 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나 아무리 죽도록 항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본 군사를 끝까지 당하여낼 수는 없었다. 이윽고 진터를 버리고 도망을 하였다. 대관절 그들이 오늘이야 말고 무슨 까닭으로 그다지 몹시 버텼다는 말이냐고 이상히 생각하면서 우리 군사는 적군이 물러간 진지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인도 병정의 시체만 육백 개나 늘비하게 엮여져 있는데 그 죄다가 등 뒤로부터 쏜 속사포의 탄환에 맞아죽은 시체들이었었다. 저 흉악한 영국 독전대의 한 것이었다.

독전대는 곧 싸움 감독을 하는 군대니 영국은 드디어 인도 병정의 등 뒤에다 독전대를 내세웠던 것이다. 인도 병정으로 하여금 앞에서 접전을 하게 하고 영국 병정이 그 등덜미에다 총부리를 잔뜩 겨누고 지키다가 인도 병정이 싸움을 열심히 아니한다든지 도망이나 항복을 한다든지 하면 그대로 쏘아 죽이는 것이다.

등 뒤에 그와 같이 무서운 독전대가 있음으로 하여 인도 병정들은 그 처럼 우리에게 대들어 싸웠던 것이요 그러다 육칠백 명의 한 때가 도망인지 혹은 항복인지를 하려는 기미를 보고서 영국 독전대는 악독하게도 그들을 한 총부리에 쏘아 죽여버렸던 것이다. 진실로 하늘과 사람이 한 가지로 노할 죄상이 아닐 수 없었다.

4. 스리모의 접전

스리모는 짓도라보다 못지 아니한 요지로 적군의 방비는 대단히 굳고 엄하였다. 도로라구라는 동네 조금 못미처서부터 시작하여 스리모에 이르기까지 오십여 리 지경이 칙칙한 정글 사이로 외줄기의 길 하나가 뻗어 나설 뿐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한 외줄기의 길에다 적군은 오 리 바탕이 멀다 하고 묵묵히 마름쇠 울타리를 가시덤불처럼 두껍게 늘이고 좌

우에서는 대포와 속사포를 빗살같이 들이대고서 잔뜩 지키고 있었다. 또 길바닥에는 살살이 자기황(地雷)을 묻고 다리라는 다리는 모두 다 폭발탄을 묻어 우리 군사가 열썬만 하면 팡— 팡 터트리게 마련을 하여 놓았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짓도라와 달라 우리 군사가 방금 쳐들어 오는 줄을 알기 때문에 적군은 속속들이 맞아 싸울 준비를 하여놓고서 마침 기다리고 있는 판이었었다. 따라서 짓도라에서처럼 호젓한 병력을 가지고 열결에 무찔러버리거나 할 계제는 아니었다.

우리 군사 안도 부대가 ‘도로락구’ 못미처에서부터 스리모의 진영을 치기 시작하기는 새해를 맞이한 정월 초엿새날이었다. 이 안도 부대는 마쓰이 군단의 판패군사(別動隊)로 마쓰이 군단이 싱고라에 하륙하던 날 때를 같이하여 그 남쪽 바다니 항구에 하륙을 한 후 서쪽 해변으로 쫓아 짓쳐 내려가는 마쓰이 병단과 서로 부르며 응하는 듯 발걸음을 나란히 하여 가면서 줄곧 한가운뎃길로 쫓아 짓쳐 내려오고 있었다.

안도 부대장은 대단히 용맹하고도 집전에 능란한 장수로 스리로 진터가 것처럼 튼튼하여 보병만 내세워가지고 앞으로만 대고 첫 자 호락히 때릴 수가 없음을 재빨리 눈치채이자 즉시 계책을 고쳐 전차 두 중대를 앞으로 내세워 길을 헤치고 나가게 하는 한편 보병 한 대대로 하여금 왼편으로 정글을 뚫고 비어져 나가면서 적군의 바른편 옆구리를 연방 내리치도록 하였다.

이렛날 첫새벽이었다. 시마다 전차중대는 노구치 전차중대로 후군을 삼고 스스로 선봉이 되어 약간의 공병을 결들여가지고 침병장 와다나베 소위의 전차를 선두에 세우고서 적군의 맨 앞 진터를 향하여 맹호와 같이 짓쳐 나아갔다. 한 부대의 맨 선두에 나아가는 군사를 송곳처럼 적진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침병대라 부른다.

우리 전차 떼가 적군의 맨 앞 진터에 들어서자 벌써 나는 새도 벗어 나기 어려운 마름쇠 울타리가 길을 막는다. 길바닥에는 자기황이 묻혀

있다. 적군의 탄환이 빗발치듯 한다. 그런 가운데를 전차와 공병이 합심이 되어 마름쇠 울타리를 끊어 헤치고 자기황을 치우고 하면서 나아간다. 그 뒤를 보병과 포병이 뒷받침하면서 따라온다. 이렇게 하여 전차와 공병과 보병 포병이 한몸 한뜻이 되어가지고 손이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풍우같이 짓쳐 나아간다.

이윽고 아침 일곱시 반 중대보다 한 걸음 앞선 침병대의 전차는 벌써 도로락구의 동구 밖까지 당도하였다. 동구는 전차를 막는 방해물과 마름쇠 울타리와 자기황으로 철통같이 막혔다. 침병대의 전차는 중대가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쳐 버젓이 꿰뚫고 도로락구로 짓쳐들어갔다. 그러자 바로 그 앞에 다리 하나가 있고 다리에는 폭발탄이 묻혀 있었다. 그래도 몰아친다면 침병대만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다리는 적군의 손에 부서지고 말 것이었다. 부서지면 뒤에 오고 있는 중대는 물론이요 보병과 공병과 그리고 안도 부대 전군이 다리를 고쳐놓을 동안 여기에서 담보를 하지 아니하는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와다나베 병장은 운전하는 군사에게 “정거해라” 하고 명령하였다. 운전하는 군사는 웬일이고, 하면서도 급히 정거를 시키면서 돌아다볼 제 와다나베 침병장은 그동안 벌써 전차의 뚜껑을 열고 홀몸이 전차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적군이 쏘는 대포탄환이 전차를 스치고 날아가고 속사포의 탄환이 콩 볶는 소리처럼 전차의 철갑에 부딪치는 그 속이었다.

“위험합니다” 하고 수하의 한 군사가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체 와다나베 침병장은 전차로부터 뛰어내리더니 별양 급하게 구는 것도 아니요 척척 걸어가서 폭발탄에 비끄러매인 전깃줄을 잡아 끊는다. 그 우박처럼 쏟아지는 적군의 탄환이었건만 마치 탄환이 일부러 사람을 피하는 것처럼 비키기만 하지 와다나베 침병장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한다.

와다나베 침병대는 그와 같이 하여 다리를 성히 빼앗은 후 다리 건너편으로 가서야 나아가기를 멈추고 중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조금 있다 시마다 전차중대가 당도하고 뒤미처 보병과 공병도 한 때가 이르렀다. 이에 시마다 중대장은 가만히 동정을 살핀 끝에 한시라도 더 많이 성한 채로 빼앗을 결심을 하였다. 적군이 매양 우리 군사가 이르기 전에 미리서 물러가느라고 다리를 미리서 부서트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시마다 중대장은 그리하여 중군이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이미 와서 있는 보병과 공병도 중군이 당도하기까지 이곳을 지키도록 하느라고 떨어트려 둔 후에 전차 한 중대만으로 도로락구를 떠나 다시 앞으로 곧바로 갔다.

일로부터 시마다 전차중대는 와다나베 침병장의 번번이 민첩하고 용맹한 활동으로 연방 다리를 빼앗고 길을 헤치며 적군의 항거를 물리치면서 짓쳐 내려가 오전 열시 반에는 스리모의 북쪽 다리를 또 열한시 반에는 스리모의 남쪽 다리를 마지막 억누르고 말았다. 그동안에 폭발탄의 전깃줄을 끊어 다리를 빼앗기 일곱이요 적군의 전차 자동차 포병 보병을 쳐부수고 무찌르기 부지기수였다. 그 중에도 도로락구와 스리모의 중간 리바에서는 적군의 포병 한 대대를 씨도 없이 무찔러 대포 열 몇 개와 자동차 이백 대를 산산이 부서트렸다.

스리모의 남쪽 다리는 길이가 육십 칸이나 되는 큰 다리로 그 건너편에는 적군의 여단 사령부와 대포 뿌리가 한 아름씩 되는 중포 진터가 있었다. 우리 시마다 전차중대의 전차 때는 아를 들이대고 쏘아 적군의 여단장은 대포탄환을 정통으로 맞고 악들이 났으며 중포도 여러 개를 부서트렸다. 그런 후에 시마다 중대장은 사도 소위로 하여금 전차 한 소대를 이끌고 다리를 건너가 적군의 중포 진터를 마저 치게 하고는 스스로 나머지 전차를 거느리고 오는 길로 좇아 스리모의 북쪽 다리를 향

하였다. 이 북쪽 다리와 남쪽 다리 사이사이에서 적군의 남은 군사가 우리 군사의 중군이 보병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행군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쓸어엿애기 위함이었다.

사도 소대장은 겨우 한 소대의 단출한 전차로써 아직도 기승스럽게 대포탄환을 퍼붓는 적군의 중포와 맞서서 용맹하게 싸웠다. 그 큰 적군의 대포가 우리 적군의 우리 전차의 조그마한 대포탄환을 맞고 연방 부스러졌다.

한참 그렇게 맞붙질을 하며 싸우던 중에 아차 그만 적군의 중포탄환 하나가 잘못 날아들어 사도 소대장의 전차를 정통으로 들어맞혔다. 전차 안의 사도 소대장과 한 군사는 시체조차 가루가 되고 대포를 쏘는 포수는 대포의 손잡이를 잡은 채 운전하는 군사는 핸들을 잡은 채 엎어져 네 명이 한꺼번에 장렬한 죽음을 하였다. 이에 소대의 빠른 전차들은 부서진 소대장 차와 시체들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쏘아지는 적군의 대포탄환과 물려드는 적군의 보병대에게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날이 저물도록 귀신도 놀랄 만큼 납땀며 싸웠다.

한편 안도 부대의 중군은 전차부대가 그와 같이 혼자서 앞을 달리며 다리를 성히 빼앗고 치워놓은 길로 쫓아 거침없이 군사를 나아가 날이 저물녘부터는 물밀듯이 스리모로 물려들었다. 이에 수천 명이나 되는 스리모의 적군 한 여단은 독 안에 든 쥐처럼 꼼짝달싹을 못하고 몰판이 되었다. 이 스리모의 접전에서 우리 군사가 빼앗고 거둔 적군 병기는 중포가 열세 개 전차를 쏘는 대포가 스무 개 철구포가 열다섯 속사포가 스무 개 자동자행거가 서른 채 철갑한 자동차가 십 채 자동차가 오백 채 그리고 그 밖에 보병총이며 탄자와 화약이며 또는 부서트린 병기는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

적군의 패한 군사들은 길은 외줄기의 한 길뿐인데 다리라는 다리는 모두 다 우리 군사가 차지하고 있어 우선 다급한 대로 정글 속으로 도

망을 하였었다. 그러나 독한 벌레와 뱀이 시글시글하고 먹을 것도 없는 정글 속에서 오래 견딜 재주가 없어서 도로들 팔을 쳐들고 나와 항복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로잡힌 적군의 포로들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열을 지어 휘적휘적 걸어가다가 뒤쫓아오는 우리 군사에게 연방 경례를 하는 양은 보기에조차 속이 후련하였다. 그렇게도 저희만 잘난 체 천하를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양코들이 아니었던고. (중략—편자)

6. 마지막 한 군사까지

조홀은 적군이 싱가포르를 등 뒤로 막는 마지막 요지이다. 이 마지막 요지 조홀을 적군은 서쪽은 박구리에서 지키고 한복판은 구라이 근처에서 지키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박구리는 그와 같이 함락이 되고 남은 것은 오직 구라이 근처의 진터가 있을 따름이었다.

라티스로부터 구라이에 이르는 이백오십 리 길은 길에서 한 걸음만 비켜도 칙칙한 강물과 가슴까지 빠지는 진흙구렁이 좌우로 쭉 있어서 길 아니고는 도저히 군사를 나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한 외줄기의 길을 적군은 미리서 토막토막 끊고 다리는 깡그리 부수고 그리하여 놓고는 끊긴 길목과 부서진 다리마다 대포 뿌리를 잔뜩 겨누고 보병을 복렬시켜 두고서 곧바로 짓쳐 내려오는 마쓰이 병단의 우리 군사를 막았다.

우리 군사는 그럼에도 굴치 아니하고 굳굳이 짓쳐 내려가 정월 26일에는 심판레강이라는 곳의 북쪽에 당도하여 거기서 굳은 진지에 의지하여 막고 있는 적군의 큰 군사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적군은 진지가 워낙 튼튼하고 지형은 우리 군사에게 이롭지 못하여 좀처럼 이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때에 옆길로 비어져 나가서 적군의 덤미를

치는 것은 전차를 앞세워 정면으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법칙과 아울러 가장 큰 효험 있는 방식이었다. 진실로 마래 접전은 그 두 가지 독특한 법칙이 아니었으면 그와 같이 빛나는 승전은 거두지 못하였을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마쓰이 병단의 중군이 심판랭감에서 적군과 대치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 와다나베 부대로 하여금 원편으로 비어져 크루완으로부터 첫길을 따라 쿠라이로 나아가서 적군의 등 뒤를 들이치게 하였다.

와다나베 부대는 즉시 군사를 재촉하여 쿠라이로 향하던 중 멩기볼 남쪽에서 굳은 진터를 쌓아놓고 길을 막는 적군의 큰 군사와 부딪혔다. 우리 군사는 여러 차례 이를 뚫고 나가려고 시험하였으나 매우 졸연치가 아니하였다. 좀처럼 하루나 이틀에 이것을 뚫고 나가서 목적인 바 심판랭감의 적군을 덜미 잡게 될 싹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렇다고 적군과 마주 대하여 시기를 기다린즉 그동안 적군은 진지를 더욱 굳세게 할 것이다. 병력은 더욱 늘릴 것이다. 갈수록 빼앗기가 힘이 들게 될 터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역시 옆길로 비어져 나가 적군의 덜미를 잡는 법식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이다야 소대가 그 소임을 맡았다.

이다야 소대장 이하 스물세 명의 단원 중에도 날랜 군사는 가벼운 속사포와 보병총만 메이고 은밀히 옆길로 쫓아 비어져 나가서 벼락치듯 적군의 옆구리를 무찔렀다. 적군은 불시에 엄습을 받고 놀래어 허둥거리며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와다나베 부대는 적진을 뚫고 나가 목적인 바 심판랭감의 적군의 덜미를 잡았다. 심판랭감의 적군도 그리하여 진터를 버리고 남쪽으로 조흔을 바라보며 조수같이 밀려 달아났다. 그 큰 군사를 이를 테면 스물세 명이 파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렇듯 큰 공을 세우고 나서 이다야 소대는 그만 물판을 당하고 말았다.

멩기볼을 지키던 적군은 처음에 영문을 모르고 것처럼 도망을 하였으

나 뒤이어 우리 군사가 겨우 이십여 명의 적은 군사인 줄을 알고는 뒤 돌아서서 수백 명이 이다야 소대를 사면으로 에워쌌다. 이다야 소대장은 검을 휘두르며 소대를 지휘하여 용맹이 싸웠다. 적군은 늘비하게 쓰러진 저희 편의 시체를 딛고 넘어오며 즐기치게 덤비었다.

우리 군사는 쏘고 쏘아 총대가 시뻘겋게 달도록 쏘아대었다. 그러나 마침내 가지고 갔던 탄환이 다하였다. 이에 소대장 이하 전원은 일제히 궁성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하직을 사린 후 검과 창으로써 적군의 에움을 짓쳐 여기에 피투성이의 단병 접전이 벌어졌다. 우리 군사는 한 사람이 열 명 스무 명의 적군을 넘어뜨렸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군사도 하나씩 둘씩 넘어졌다. 그리하여 이다야 소대장을 비롯하여 스물세 명 전원이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쿠라이가 함락되자 그로부터 조홀까지 수백 리 지경은 적군의 그림자도 남지 않았다. 조홀은 싱가포르를 지키는 맨 마지막 진터인 만큼 적군도 여기에서만은 제법 버티어보려고 하였으나 그도 필경 정월 그믐날로써 함락이 되고 말았다.

7. 무너지는 금성 철벽

싱가포르는 적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튼튼한 진터였다. 백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치더라도 일 년이나 이 년에는 함락되지 아니한다고 영국은 물론이요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겹하여 적은 우리 군사가 처음 싱고라와 코타발에 적전 상륙을 하여가지고 풍우같이 짓쳐 내려와서 조홀에 이르는 오십여 일 동안에 한층 더 방비를 튼튼히 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즉 그때까지는 남쪽 바다 쪽으로 대고 있던 대포 뿌리를 우리 군사가 쳐들어가는 북쪽 육지 쪽으로 많이 돌려

놓고 그 밖에 새로이 진터를 만들고 하였으며 일단 호주로부터 자꾸자꾸 군사를 실어다 수를 늘리어 십이만이나 넘는 군대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싱가포르 하나만은 함락당하지 말고 이 년이고 삼 년이고 오래오래 지켜내려고 하였다.

그러한 때라 우리 편에서도 이를 침에 있어 신중한 계획과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우선 우리 편에서도 군사를 그때까지보다 훨씬 늘렸다. 그리고 우리 편의 대포 한 대 한 대에 대하여 천 방씩의 대포탄환을 준비하고 조홀 수도를 건널 배도 ○○척이나 준비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하여가지고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좌익부대는 조홀 수도 동쪽으로 있는 우빈이라는 섬으로 쫓아 쳐 건너게 하고 중앙부대는 한가운데로 쫓아 쳐 건너게 하고 우익부대는 맨 서쪽으로 고무숲 속에 은신을 하였다가 불시에 쳐 건너게 하였다.

황기 2602년의 기원절을 일 주일 앞두고 2월 4일 오후 여섯시부터 그동안 싱가포르를 향하여 견양을 잔뜩 대고 있던 우리 편의 큰 대포들은 마침내 적진을 향하여 무서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적군의 대포 진터와 휘발유 창고는 우리 편의 대포탄환을 맞고 차례로 차례로 부서지고 불이 나고 하였다. 대포탄환이야 대포 한 대에 천 방씩이나 준비하였었다. 사정없이 들이 쏟아부었다.

우리 편이 대포를 쏘에 따라 적도 5일날 아침부터 일제히 대포를 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조홀 수도를 사이에 두고 천지를 뒤흔드는 대포 소리와 자욱한 화약 연기에 싸인 가운데 웅웅거리는 대포탄환이 빗발치듯 오고 가고 하였다.

피차간 대포질을 하기 이들 우리 편은 마침내 좌익부대의 사백여 명의 적은 병력을 시켜 7일 밤에 살며시 우빈섬을 들이쳐 점령하였다. 적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부터 우리 우익부대 쪽으로 대고 거진 전력을 들여 막고 덤볐다. 적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좌익부대에 정신이

팔리도록 짐짓 하였던 것이 우리 편이 신출귀몰한 계획이었다. 적은 깜짝 우리 편이 동쪽으로 쫓아 싱가포르를 쳐들어오거나 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편은 적으로 하여금 그렇게 동쪽에 정신이 팔리게 하여놓고는 8일날 밤을 타 중앙부대와 우익부대가 불시에 조홀 수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적은 완전히 우리 편의 꾀에 넘어가고 만 것이었다.

이 조홀 수도를 우리 군사가 배로 건너는 싸움에 있어서 ○○연대의 야마모토 일등병은 세 척의 배를 거느리고 건너는 중 바른편 꾀에 적병의 탄환을 맞고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밖으로 뺏어나왔으면서도 천연히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여 배에 탄 우리 군사가 육지에 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쓰러졌다. 그렇게 중상을 입고도 오히려 생명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서운 정신력을 지닌 우리 일본군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군사가 조홀 수도를 건너서부터 시작하여 싱가포르의 적군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기까지의 경과를 날짜를 쫓아 적으면 다음과 같다.

2월 9일

첫새벽 두 차례에 나누어 조홀 수도를 건넌다. 오후 일곱시에는 가까운 텅가 비행장을 빼앗다. 이날 무다구치 병단장 무다구치 중장이 중상을 하다. (이 무다구치 중장은 참으로 용맹하고 인품이 높은 분으로 일찍이 선전의 대조가 내려오신 저 십이월 팔일 서쪽으로 마래반도를 짓쳐 내려온 마쓰이 병단과 때를 같이하여 동쪽 코타발에서 장렬한 적전상륙을 한 무다구치 병단을 거느리고 무서운 접전을 하여가며 조홀까지 이르렀으며 이어서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적군 진터 부키테마를 점령하여 마침내 적군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하게 하는 등 그 전공이 크게 빛나는 분이였다.)

2월 10일

무서운 접전이 있는 다음 437고지를 점령하다 이어서 만다이 산의 적 진터를 쳐 이를 점령하다.

2월 11일

부키테마를 점령하다 비행기로써 적군의 총사령관 파시방에게 항복을 권고하였으나 응치 아니하다. 부키테마를 빼앗고 지키는 접전은 어느 접전보다도 가장 무서운 접전이였다. 우리 편과 적군의 것을 합하면 삼백 대나 되는 대포가 쉴 사이 없이 서로 불을 뿜었다. 우리 편이 부키테마를 점령한 뒤에도 적군은 이를 도로 빼앗고저 드세게 뒤돌아서 오고 하여 여러 번이나 무서운 백병전이 어울렸다.

2월 13일

우리 편은 부키테마를 완전히 점령하여가지고 세 곳으로부터 적군을 둘러싸기 시작하였다.

2월 14일

적군은 드디어 우리 편의 맹렬한 공격에 못 견디고 창키 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2월 15일

아침부터 무서운 싸움이 계속되던 중 오후 일곱시 오십분 적은 마침내 항복을 하였다.

싱가포르 완전함락.

이것이 싱가포르를 함락시킨 싸움의 대강이거니와 이제 그 전과는 다시 다음과 같다.

사로잡은 적

군사 총사령관 이하 칠만삼천여 명 부상하여 우리 편의 치료를 받고

있는 자 팔천여 명.

빼앗은 병기

크고 적은 대포 삼백여 대 기관총 이천여 대 총 오만 자루 가랑 자동차 전차 이백 대 가랑 탄자 화약 다수 여러 가지 군용품 재료 다수 배 여러 척.

사로잡은 가운데 우두머리 가는 이름만 들면 총사령관 파시발 중장 제사군단장 히스 중장 제일사단장 키 소장 제십팔사단장 스미스 소장 호주 제팔사단장 카라간 소장 요새수비사령관 시몬스 소장 등이다. 그리고 군인은 아니나 싱가포르 총독도 우리 편에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이 총독이란 자는 영국인 중에도 출중하게 악독하고 거만하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 국제 공법에 아무리 전쟁 때라도 적군의 대사니 공사니 영사니 하는 외교관은 자유로 다니지 못하게나 하는 것이지 함부로 감옥에다 가두거나 하는 법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총독이란 자는 대동아전쟁이 일어나자 그곳의 우리 편의 일반 백성은 물론이요 외교관까지도 붙잡아서 창키라는 감옥에다 죄인처럼 가두었다. 그 창키라는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저이들 영국인 죄인을 가두는 감방은 침대나 낫 씻는 곳까지 있어 버젓이 좋고 동양 사람을 가두는 감방은 그대로 시멘트 공구리 바닥이었다. 그런 시멘트 공구리의 바닥의 흉악한 감방에다 우리 일본의 외교관들을 가두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총독이란 자더러 어찌하여 우리 일본의 외교관들을 그런 흉악한 곳에다 가두었느냐고 물은즉 그자 대답이 거기가 제일 안전함으로 그랬노라고 뻔뻔스럽게 둘러대었다. 오냐 그럼 너도 그 소위 제일 안전한 곳에 가서 좀 있어보라고 당장 등을 밀어다 가두었다. 어제날까지도 궁궐 같은 총독 관저에서 평평거리고 지내던 총독을 한 되들이 물병 하나를 들려 뜨거운 폭양에 사십 리 길을 걸려서 창키 감옥으로 보내서 시멘트

공구리 바닥에 가두고 담요 하나만 달라는 것도 주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 군사가 싱가포르를 함락하였을 때에는 그곳에 붙잡혀 갇혔던 우리 나라의 외교관이며 수백 명 동포는 벌써 인도로 데려가 버리고 한 명도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감방의 벽에는 손톱으로 쓴 비통한 유서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그 유서로 영국군들이 우리 동포를 타마유에 넣기를 다 아니하나 문둥병자의 병실에다 같이 몰아넣기를 다 아니하나 벌판에다 철조망을 치고서 그 안에다 몰아넣고 밥도 아니 먹이지를 아니하나 차마 입으로 헤일 수 없는 악독한 죄상이 역력히 드러났다. 아무런 죄도 없는 비전투원을 것처럼 학대하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정의(正義)니 인도(人道)니 점잖은 국민이니 하고 자랑하는 것이 적 영국인인 것이다.

8. 소남도

싱가포르를 점령하자 야마시다 마래 방면 최고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의미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황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옳은 뜻을 남기었다.

무릇 싱가포르는 영국이 인도, 호주, 동아를 한 줄에 엮어 다스리는 데 없지 못할 땅인 동시에 한편 동아를 침략하는 싸움터로서 자래로 금성 철벽의 든든한 진터라고 일컫던 곳이다. 그런데 우리 일본군이 한번 이를 치기 시작하자 마래반도를 휩쓸었고 한 주일이 못 되어 싱가포르는 함락되어 영국의 인도와 호주와 동아를 억누르려던 힘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근본이 영국은 투철히 이기독선주의의 나라로 거만하며 남을 멸시할 뿐 아니라 약삭빠르고 속임수에 능하고 신의와 의리가 없는 짓을 하여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챙기며 온 세계에 해를 끼침이 매우 컸

었다. 우리 일본군이 마래반도와 싱가포르를 치는 동안에 본 것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들 영국인이 마래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자취가 수두룩할 뿐 아니라 싸움하고 도망하면서도 마래 백성의 돈과 재산과 양식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집에도 불을 지르고 하여 민중을 도탄에 빠지게 함이 이루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또 접전을 하면서는 인도 군사와 호주 군사를 앞잡이로 세워놓고 영국인 군사는 뒤에가 남아서 싸움 감독이나 하고 그 악독한 소행이라니 참으로 인정상 용서치 못할 공적(公敵)이라 할 것이었다. 일본 제국이 이번에 정의의 검을 잡고 일어선 연유는 이미 여러 차례 성명을 한 바와 같이 악독하고 음험한 영국을 몰아내고 만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유무상통하며 각 민족과 각 사람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 그 처한 바를 있도록 하려는 소위 팔굉일우의 큰 정신에서 정의 아래 신질서를 갖추어 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시운의 진보를 돕고자 함이요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런고로 일본군은 앞으로 다시 근방에 있는 영국 미국의 남은 세력을 쓸어엮애는 동시에 오랫동안 내려온 영국인이 피를 빨던 자취를 씻어버리고 아울러 이번에 받은 전화(戰禍)를 부흥하여 마래 땅의 영원한 발달을 위하여 모든 힘을 쓰려고 하는 바이다. 마래 백성은 일본 제국의 그러한 참 뜻을 이해하여 일본군과 힘을 합하여 신질서와 공영권이 하루바삐 확립되도록 협력하기를 바라노라. 만약 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욕심 제 이익이나 생각하며 신의 없는 짓을 한다든지 새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일본군의 행동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응징할 것이다. 이에 싱가포르를 쳐 함락시킴에 임하여 백성에게 알리고 바라는 바를 밝혀서 그릇됨이 없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함락되고 사흘 만인 2월 17일에는 싱가포르를 소남도 소남항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이능위 아래 팔굉일우의 대정신으로 동아를 영국 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남방의 새로운

기쁨과 광명을 주는 희망의 섬으로서 가장 좋은 이름인 것이다. 소남도
에는 그리하여 펄펄 날리는 일장기 아래 남방공영권의 새로운 건설이
씩씩하게 진행되었었다.

(『반도의光』, 1944년 3월~7월)